

## 간호대학생과 타전공 일반대학생의 다문화태도 및 관련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김미종<sup>1\*</sup>

<sup>1</sup>한남대학교 간호학과

### A Comparison Study on Multicultural Attitude and Relating Factor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Major Students in Korea

Mijong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Hannam University

**요약** 간호학전공 대학생들과 타전공 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서술적 비교연구로 설계되었다. 자료수집은 D시의 3개의 대학교에서 2012년 11-12월에 수집되었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309명의 간호대학생들과 195명의 타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Munroe의 도구를 강혜정이 한국형으로 수정보완 한 The Korean version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MASQUE)가 사용되었다. 도구의 신뢰도는 .85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참여자 전체의 다문화 태도 평균은 6점만점에 4.4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의 다문화태도는 일반전공 대학생들과 차이가 없었지만 간호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 각각 그룹별로 세부변수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본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일주일이상 해외에 나가 본 경우, 다문화관련 행사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문화관련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있는 경우 다문화태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생들이 외국인 응대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던( $t=2.85, p=.00$ ) 반면, 간호학생은 외국인 응대경험과 상관없이 다문화 태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30, p=.76$ ). 이는 간호학생들이 임상실습경험을 하여 외국인과의 접촉하게 될 기회가 많지만 이러한 형태의 실습 중 만남이 긍정적 다문화 태도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다문화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다문화태도 증진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lticultur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major students. And it was explored influencing factors related with it. This study was used a descriptive comparative designed. Data were collected 3 universities in D city in from Nov. to Dec. in 2012. After receiving the agreement, 309 nursing students and 195 non-nursing major students were recruited. They were asked to fill in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about multicultural attitude. The Korean version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MASQUE) was used. Cronbach's alpha were .85. Data were analyzed by SPSS 18.0. The mean score of multicultural attitude was 4.44 of 6 points(73%) in all participants. Nursing students' multicultural attitudes scores were equal to other college students'. The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attitude were the experiences of having foreigner friends, going abroad, attending multicultural events, and contacting multicultural contents. The students who have cared foreign patients were not higher than others in nursing students group( $t=.30, p=.76$ ). For nursing students contacting foreigners in clinical practice, it doesn't make a difference in multicultural attitude. The culturally empowering programs were needed for nursing students to improve multicultural attitudes.

**Key Words** : Attitude, College Students, Multiculture, Nursing students, Non-nursing major students

이 논문은 2014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jong Kim(Hannam Univ.)

Tel: +82-42-629-8895 email: mijong@hnu.kr

Received January 21, 2014

Revised March 25, 2014

Accepted April 10, 2014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단일민족과 혈통주의를 중시해왔던 우리나라는 최근 약 20년 사이에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다문화 혼인의 비율은 8.9%로 약간 감소추세로 접어들었으며, 자녀의 출생에 있어서 한국인 부모의 출생아가 전년 대비 2.7% 증가한 데 비해, 다문화 부모의 출생아는 4.1%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2]. 국내 유입 외국인 비율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정착한 외국인의 자녀가 태어나고 한국 사회에 성장하고 있어 다문화 사회의 경향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학교, 시장, 병원 어디에서건 외국인을 만나기는 어렵지 않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화, 가치관, 종교, 언어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 들어서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발전하는 사회로 변모해가야 하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1,3,4]. 다문화사회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정책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들이 생활 속에서 편견과 차별 등 부정적인 영향력을 인식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3].

간호의 영역에서도 증가하는 다문화 인구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한국의 간호전문직은 전례 없는 문화적 다양성과 마주하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차이는 구성원들에게 문화배경에 따라 성역할, 여성에 대한 인식, 종교에 따른 건강 및 가치관, 출산 및 임종, 의사소통방식, 의료체계 접근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4], 간호학계에서도 ‘새로운 간호대상자의 출현’으로 표현하며 다문화 인구에 대해 특별하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5].

결혼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 국제 결혼이주자들의 83.7%는 결혼 후 1년 이내에 임신을 하고 평균 6.6개월 만에 첫 임신을 하게 되며[6], 이는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문제로 보건의료 인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산전관리나 분만, 산욕기 관리와 이어지는 양육의 기간 동안의 예방접종, 소아질병간호, 수유교육 등 많은 상황에서 의사, 간호사, 보건간호사 등을 만날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한국 사회에서 의사나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 전문 인력은 다양한 국적

의 다문화 대상자를 만나야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행문학적 돌봄이론의 간호학자인 레닌거는 대상자에게 간호에 대한 만족감을 주고 치유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문화적 이해와 존중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문화적 신념과 가치가 무시된 간호를 제공받는 대상자는 스트레스, 문화적 갈등, 윤리도덕적 근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 환자의 건강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7].

또 간호직이 외국인 대상자에 대해 더욱 관심 가져야 할 이유 중 하나는 전문직의 자발적 윤리적 공언인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있다.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에 따르면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성적 지향, 질병과 장애의 종류와 정도, 문화적 차이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할 것을 한국 사회에 천명하고 있으므로[8], 간호사 및 간호사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관심과 다문화 대상자를 도우려는 적극적인 실천은 당연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여야 다문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에 대한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도구와 개념이 달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렵기는 하지만 만점을 기준으로 간호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백분율로 비교해보면 오원옥의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문화적 민감도는 73% (2.94점/4점)으로 [9], 보건의료 및 복지 대학생들의 점수인 77%(3.1점/4점)보다 낮았고[10], 김덕희 등은 간호학생의 문화적 역량 수준은 60%(3점/5점)로 낮았으며[11], 간호학과 3, 4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경숙 등은 72%(3.6점/5점) 정도로 나타나[12] 간호학과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 및 문화적 역량수준은 우수와 중간의 사이에 위치하여 충분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과 타전공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특히 임상현장에서 처음으로 간호를 접하고 실현하는 간호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고찰해보고자 시도되었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다문화태도를 확인하고 다문화태도 관련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 차이를 비교한다.
- 일반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 및 일반대학생들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를 파악한다.
-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1.3 용어정의

#### 1.3.1 다문화태도

다문화 태도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다문화 사회에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내적 특성이다[13,14]. 구체적으로 민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성별, 성적성향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로 인한 차별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요소(Knowing)와 다른 문화와의 차이를 공감적으로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관심과 흥미를 갖는 정서와 관심의 요소(Caring),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차별을 없애기 위한 실천을 모색하려는 행동의 요소(Acting)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13].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판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차별이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며, 다문화에 대한 차별 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전공학생들과 일반 대학생들 간에 다문화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대도시인 D시에 위치한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료 간호학을 전공학생들과 간호학 비전공의 일반대학생을 골고루 편의표집하여 추출한 5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표본크기는 G 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5, 검정력 .95의 수준에서 그룹당 각 105명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11-12월이었으며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보조자가 강의실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 중간에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그만 둘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15분가량 소요될 수 있음과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를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동의하고 설문지에 답하도록 하였다. 수거된 509부의 설문지 중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한 504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다문화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문화태도 측정도구로는 미국에서 대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 Munroe와 Pearson이 개발한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MASQUE)를 2012년 강혜정이 한국어로 번안하고 수정보완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한국어판 대학생용 다문화태도 척도를 이용하였다[13,14]. 이 도구는 차이인식, 개방과 수용, 실천의지의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6점 척도의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강혜정의 연구에서 Chronbach's alpha는 차이인식 .78, 개방과 수용 .76, 실천의지 .7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태도는 .85이며, 하부요인인 차이인식 .77, 개방과 수용 .80, 실천의지 .86으로 나타났다.

#### 2.3.2 일반적 특성 및 다문화관련 특성

성별, 학년, 연령, 전공 등을 포함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문화관련 특성으로는 다문화관련 강좌 수강경험, 해외방문 경험, 외국인 친구유무, 일반적 봉사경험과 다문화관련 봉사경험, 다문화관련 콘텐츠의 경험, 향후 다문화관련 강의 수강의도 등이 조사되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다문화관련 특성, 다문화태도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일반적 및 다문

화관련 특성의 차이는 t-test와 chi-square test를 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 점수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넷째, 간호대학생들과 일반대학생들의 일반적 및 다문화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는 t-test로 분석하였다.

다섯째,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및 다문화관련 특성

대상자는 간호학생 309명과 타전공 일반대학생 195명(공과대학 1개 학과 66명, 33.8%, 이과대학 2개학과 71명, 36.4%, 경상대학 2개학과 50명, 29.8%)의 총 504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자의 두 그룹별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04)

Characteristics	nursing students (n=309)	other majored students (n=195)	X <sup>2</sup> /t	p	
	freq.(%)	freq.(%)			
age	*21.0(2.4)	*20.6(1.9)	1.84	.06	
Gender	male	24(7.8)	87(44.6)	94.8	.00
	Female	285(92.2)	108(55.4)		
grades	1-2	196(63.4)	131(67.2)	.79	.21
	3-4	113(36.6)	64(32.8)		
multiculture class	yes	11(3.6)	9(4.6)	.34	.35
	no	298(96.4)	186(95.4)		
foreign friend	yes	47(15.2)	28(14.4)	.07	.44
	no	262(84.8)	167(85.6)		
going abroad	yes	112(36.7)	66(33.8)	.37	.30
	no	197(63.3)	129(66.2)		
teating or caring foreigner	yes	75(24.2)	32(16.4)	4.10	.02
	no	234(75.7)	163(83.6)		
attending events about multiculture	yes	19(6.1)	14(7.2)	.24	.38
	no	290(93.9)	181(92.8)		
Having Foreign relative	yes	68(22.0)	38(19.5)	.34	.32
	no	241(77.9)	157(80.5)		
contactong multiculture by books or movies	yes	110(35.6)	69(35.4)	.02	.47
	no	199(64.4)	126(64.6)		
intention of taking a class about multiculture	yes	141(45.6)	83(43.0)	.69	.22
	no	168(54.4)	112(57.0)		

\*They mean average and SD.

간호학생 그룹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7.8%인데 비해 일반 대학생의 그룹에서 44.8%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X<sup>2</sup>=94.8, p=.00),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24.9%가 외국인을 응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한데 비해 일반대학생들은 17.1%만이 경험이 있다고 하여 차이를 보였다(X<sup>2</sup>=4.10, p=.02). 두 간호전공대학생들과 타전공 대학생들의 두 집단은 전공이외에 성별과 외국인응대 경험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외에 다른 변수는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관련 경험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 3.2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다문화태도

본 연구의 대상자 504명의 다문화태도 점수는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대상자들의 다문화태도점수는 4.44점(96점 만점에 71.1점, 73%)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태도의 각 하부요인 점수는 차이인식이 4.8점(28.8점, 80%), 개방과 수용이 4.2점(21.1점, 70%), 실천의지가 4.2점(21.1점, 70%)으로 나타났다.

[Table 2] Multicultural attitude and its sub-concepts of participants (N=504)

	mean of 6points (SD)	range	min	max	mean (SD)	percentized score
multicultural attitude	4.44(.59)	16-96	27	96	71.1(9.4)	73%
Recognizing differences	4.80(.64)	6-36	6	36	28.8(3.8)	80%
openness and acceptance	4.23(.89)	5-30	9	30	21.1(4.4)	70%
committment	4.22(.81)	5-30	7	30	21.1(4.0)	70%

간호대학생과 타전공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 점수 차이는 Table 3에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간호대학생들과 타전공대학생들의 다문화점수는 두 그룹에서 4.45점으로 동일하였다(t=-.24, p=.80).

[Table 3] Comparison multicultural attitude between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N=504)

	nursing students mean(±SD) n=309	non-nursing students mean(±SD) n=195	t	p
multicultural attitude	4.45(.54)	4.45(.66)	-.24	.80
Recognizing differences	4.84(.56)	4.73(.73)	1.62	.10
openness and acceptance	4.20(.86)	4.28(.94)	-1.02	.30
committment	4.18(.78)	4.28(.85)	-1.33	.18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 점수는 총 96점 만점에 71.1점(100점 만점에 73점)으로 나타났다. 다문화태도의 각 하부요인 점수는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이 각각 차이인식 4.84, 4.73( $t=1.62, p=.10$ ), 개방과 수용 4.20, 4.28( $t=-1.02, p=.30$ ), 실천의지 4.18, 4.28점( $t=-1.33, p=.18$ )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t=5.51, p=.00$ ), 일주일이상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는 경우( $t=3.44, p=.00$ ), 다문화관련 행사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t=3.57, p=.00$ ),

[Table 4] Multicultural attitude of participants by their characteristics (N=504)

Characteristics	mean(±SD)	t/r	p	
age*		r=.04	.31	
Gender	male	4.41(.65)	-.60	.54
	Female	4.45(8.7)		
grades	1-2	4.43(.61)	-.57	.56
	3-4	4.46(.55)		
multiculture class	yes	4.68(.63)	1.84	.06
	no	4.43(.59)		
foreign friends	yes	4.78(.58)	5.51	.00
	no	4.38(.57)		
going abroad	yes	4.56(.56)	3.44	.00
	no	4.37(.59)		
treating and caring foreigners	yes	4.54(.61)	1.92	.06
	no	4.42(.56)		
attending events about multiculture	yes	4.82(.54)	3.57	.00
	no	4.42(.58)		
Having foreign or disabled person in relatives	yes	4.50(.62)	.98	.32
	no	4.43(.58)		
contacting multiculture by books or movies	yes	4.58(.59)	3.86	.00
	no	4.36(.58)		
intention of taking a class about multiculture	yes	4.58(.55)	4.48	.00
	no	4.34(.60)		

\* pearson correlation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경우( $t=3.86, p=.00$ ), 그리고 다문화관련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있는 경우( $t=4.48, p=.00$ )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3.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특성에 따른 다문화태도의 차이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 그룹을 따로 분석하여 다문

화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Multicultural attitud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nd non-nursing college students by their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nursing students		non-nursing students				
	mean (±SD)	t	p	mean (±SD)	t	p	
Gender	male	4.38(.57)	-.44	.65	4.42(.67)	-.63	.52
	Female	4.44(.54)			4.48(.65)		
grades	1-2	4.44(.54)	.10	.26	4.42(.70)	-.97	.33
	3-4	4.45(.55)			4.52(.55)		
multiculture class	yes	4.61(.58)	1.11	.26	4.76(.71)	1.44	.15
	no	4.43(.54)			4.43(.65)		
foreign friends	yes	4.75(.56)	4.38	.00	4.85(.63)	3.39	.00
	no	4.38(.54)			4.38(.64)		
going abroad	yes	4.52(.57)	2.3	.04	4.64(.55)	2.99	.00
	no	4.39(.53)			4.35(.68)		
treating or caring foreigner	yes	4.46(.55)	.30	.76	4.74(.70)	2.85	.00
	no	4.43(.54)			4.40(.59)		
attending events about multiculture	yes	4.76(.55)	2.70	.00	4.94(.52)	2.39	.01
	no	4.41(.53)			4.44(.65)		
Having foreign or disabled person in relatives	yes	4.46(.57)	.47	.63	4.56(.70)	.96	.33
	no	4.43(.53)			4.44(.64)		
contacting multiculture by books or movies	yes	4.45(.60)	2.57	.01	4.62(.57)	2.73	.00
	no	4.37(.50)			4.35(.69)		
intention of taking a class about multiculture	yes	4.55(.52)	3.13	.00	4.63(.59)	3.23	.00
	no	4.35(.54)			4.32(.67)		

간호대학생 그룹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t=4.38, p=.00$ ), 일주일이상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는 경우( $t=2.3, p=.04$ ), 다문화관련 행사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t=2.70, p=.00$ ),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경우( $t=2.57, p=.01$ ), 그리고 다문화관련 강의를 수강할 의사( $t=3.13, p=.00$ )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생 그룹에서는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t=3.39, p=.00$ ), 일주일 이상 해외에 나가본 적이 있는 경우( $t=2.99, p=.00$ ), 외국인을 응대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t=2.85, p=.00$ ), 다문화관련 행사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t=2.39, p=.01$ ), 다문화

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경우( $t=2.73$ ,  $p=.00$ ), 그리고 다문화관련 강의를 수강할 의사( $t=3.23$ ,  $p=.00$ )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문화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3.5 다문화태도에 영향요인

대상자의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과 문화관련 특성을 독립변수로 다문화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다문화태도를 12.3%의 설명하는 모형이 추정되었고 그 변수로는 외국인 친구가 있을 수록( $\beta=-.22$ ), 다문화관련 강의수강 의도가 있을 수록( $\beta=-.20$ ), 다문화관련 책이나 영화 등의 콘텐츠의 경험이 있을 수록( $\beta=-.15$ ) 다문화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6] Variables influencing multicultural attitude (N=504)

	B	SE	$\beta$ (beta)	t	p
foreign friend	-5.66	1.12	-.22	-5.36	.00
intention of taking a class about multicultural	-3.87	.82	-.20	-4.58	.00
contacting multicultural by books or movies	-3.02	.84	-.15	-3.56	.00

F=12.69,  $R^2=.12$ , Adjusted  $R^2=.12$ ,  $p=.00$

## 4. 논의

그동안 주로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던 우리사회는 최근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초입에서 국가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적, 국민 의식적 대처와 준비가 요구된다. 앞으로의 간호현장에는 한국인 못지않게 외국인 또는 그들과 관련된 다문화 가족들이 새로운 간호대상자들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1,5].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비 보건의료인인 간호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 309명과 일반전공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용 다문화척도로 개발된 한국판 MASQUE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

대상자들의 다문화태도를 확인한 후 간호대학생들과 일반전공대학생들의 다문화 태도를 비교하고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와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전체 대상자들의 다문화태도 점수는 6점 척도에서의 평균 4.44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73점)이었으며 하부요인인 차이인식 4.80점, 개방수용 4.23점, 실천의지 4.22점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강혜정의 연구에서 다문화태도 하부개념의 평균은 차이인식 4.87점, 개방수용 4.26점, 실천의지 4.13점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는데[3],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강혜정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차이인식은 부족하나 실천의지를 좀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미순 등도 Munroe & Pearson의 도구를 4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여 다양한 전공의 28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태도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가 4점 만점에 평균 2.64점(100점으로 환산시 66점에 해당)인 것을 고려할 때[15], 본 연구의 대상자들의 다문화 태도는 중등도 이상의 다문화태도 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과 일반전공 대학생, 두 집단 간 다문화태도는 간호대학생과 타전공대학생 모두 4.45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에서도 두 그룹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간호학전공 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이나 다문화인식, 문화적 역량, 다문화태도 등의 변인이 타전공대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일치되는 사실이다 [13,16,17]. 대학생의 전공별 다문화태도를 분석한 강혜정의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태도 하부개념 중 '차이인식'요인에서 사회적 소수자들의 차별과 차이에 대해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전공자들은 교육학전공 학생들이었다고 하였으며, 간호학생들은 이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13]. 다문화태도 하부 영역 중 간호학전공 학생들은 '차이인식'은 타전공자와 유사하였고 '개방과 수용'적 태도나 '실천의지'가 더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13]. 동일개념은 아니지만 인접개념인 문화적 민감성 개념을 다룬 오원옥의 연구에서도 보건 및 복지학 전공대학생 408명의 문화적 민감성은 140점 만점에 106.8점(100점 만점에 76점에 해당)이었는데[10] 오원옥의 또 다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문화적 민감성을 측정하였을 때 102.7점

으로(100점 만점에 73점에 해당) 보건 및 의료, 사회복지 전공자들의 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8]. 광주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원경 등도 역시 전공별로 분석하였을 때 간호대학생의 다문화인식은 예체능이나 인문학 전공대학생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고 발표하였다[18]. 따라서 본 연구와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간호 대학생들이 타전공 대학생들에 비해 다문화태도 수준이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것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해야할 점으로 생각된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임신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6], 그 후 예방접종이나 성장발달 검진을 비롯한 소아질환 등을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즉,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다문화대상자들의 상당수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가장 초반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간호사이고, 특히 이들에게 차세대 건강과 관련된 임신,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이 간호사의 주요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의 경우 3.6%, 타전공 대학생의 경우 4.6%만이 다문화관련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학과정 중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접할 기회가 많은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다문화 간호를 다루고 있는 간호대학은 많지 않으며 다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 간호학생나 간호사들은 많지 않다는 선행연구와 일치된다[9-12]. 이러한 맥락에서 간호학생의 다문화적 소양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인 성별, 연령, 학년 등에 따라 다문화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변수로는 외국인 친구여부, 일주일이상 해외 경험, 다문화관련행사 참여경험,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 매체 경험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의 경험, 다문화 관련 행사나 자원봉사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에서 다문화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로, 강혜영 등은 간호학생이 느끼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및 가족,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파악하였는데 외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친구가 많을수록, 외국인 친구와 알고 지내왔던 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적었으며, 종교가 천주교이고 해외생활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사회적 거리

감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17]. 마찬가지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혜정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친구가 있는 학생들과 해외생활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다문화에 관한 우리 사회의 차이를 더 잘 인식하고 개방과 수용 및 실천의지가 더 높았으며 다문화태도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13].

두 집단에서 동질하지 않았던 변수인 외국인 응대 경험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간호대학생과 일반전공대학생을 각각 집단별로 분석했을 때 몇 가지 논의점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전공대학생들이 중 외국인을 응대해본 적이 있는 경우 다문화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다. 이는 간호학생을 포함하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도 외국인과 접촉했던 경험이 많을수록 다문화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설명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15-17].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외국인을 응대하거나 돌보았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다문화태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몇 개의 선행연구에서 이와같은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보건의료 및 복지 전공대학생들의 경우에서 실습지에서 외국인을 만났던 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과 역량이 높지 않았으며[10], 김덕희도 간호학생에서 다문화 대상자와의 접촉경험이 문화적 역량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수가 아님을 보고하였다[11].

외국인을 간호하거나 응대한 경험이 많은 간호학생들이 다문화태도가 더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간호학생의 외국인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임상실습 과정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간호 대학생들이 결혼이주민, 이들과 관련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를 만날 기회는 주로 임상실습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임상실습이라는 경직되고 긴장된 상황에서 업무적이고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은 접촉의 횟수와 시간이 많아진다고 다문화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결혼이주 여성의 대한 고정관념과 그들에 대한 감정이나 사회적 거리감이 이들과의 접촉만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선행연구에서도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17]. 간호사 또는 학생의 외국인에 대한 자발적이고 풍요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접촉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 또한 외국인과의 만남여부가 아닌 그들과의 상호작용의 유형이나 질에 따라 문화적 태도와 역량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이유로 도구상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Munroe의 MAQUE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다문화와 관련된 지식, 태도, 기술의 측면을 고려하는 즉 차이인식, 개방 및 수용, 실천의지의 차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다문화의 정의와 범위를 광의의 의미로 잡아 민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성별, 성적성향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개방적으로 수용하여 차별을 감소시키려는 실천모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태도와 실천의지 사이에 개념적인 차이로 응답이 미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간호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문화적 역량이 증진될 수 있을까? 이미 다문화사회로 간주되는 미국의 경우도 간호학생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문화역량증진 프로젝트, 커리큘럼 개선 등이 많은 노력이 수행되었다 [19-23]. Callen 등은 미국 테네시 대학에서 간호대학생을 위하여 '세계를 위한 준비(Ready for the world)' 라는 5개년 간호대학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22]. 간호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 과목수강을 권장하는 등 정규 수업 안에서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방학을 이용해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서 다문화 대상자를 찾아 사랑과 헌신을 나누기, 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참여하기, 교내 국제학생 센터를 찾아 대화를 하기, 낯선 문화의 음식 시도해보기 등 10가지의 제안을 제시하며 간호학생들을 독려했다. Caffrey는 미국 오레건 지역의 간호대학에서 학기 중에는 통합적 문화 역량교육을 실시한 그룹과 다른 그룹은 추가적인 5주 해외(파테말라) 임상다문화 몰입실습(clinical immersion)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적 역량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하였다[23].

그러나 이러한 고비용의 프로그램으로 간호학생들을 바꾸게 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문화관련 책을 읽거나 영화, 방송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 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 다문화태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는 대상자를 전공전체를 분석하거나 간호대학생만 또는 일반전공대학생만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대

학생들의 다문화태도 증진전략을 모색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태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앞에서 기술했던 외국인 친구, 해외거주 경험과는 다르게 비용효과적인(cost-effective) 방법이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교육과정에서 간호교육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증진을 위한 강좌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면 이러한 간접경험을 통한 교과외 활동을 통해 다문화태도를 높이고 문화적 역량을 함양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MASQUE 도구는 Bloom의 교육목표분류학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3 영역의 능력을 포함하는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문화태도를 측정하는데 지식-태도-기술을 차이인식(know)-개방과 수용(care)-실천의지(Act)로 보고 있다. 비록 동시에 측정하는 개념이지만 알고서 느끼며 행동하는 것은 더 받아들이는 정도가 깊어지고, 시간차이를 두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료를 분석하였을 때에도 차이인식-개방과 수용-실천의지의 점수는 4.80-4.23-4.22점으로 점점 낮아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4.81-4.20-4.18점, 일반전공 대학생들은 4.73-4.28-4.28점으로 나타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즉, '차이인식'이라는 지식적 요인에서는 대상자들의 점수가 높았지만 '개방과 수용'의 감정적 요인에서는 점수가 감소하였고 '실천의지'의 행동적 요인에서는 변화없거나 감소하는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지식적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방향설정의 키를 제공한다. 즉 다문화 인구 증가와 다문화 이해를 위한 행동 등에 관해 설명하는 지식교육위주의 다문화교육을 넘어서야 할 것이며 간호학생들이 또는 대학생들이 좀 더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감정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개발전략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태도에 관한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는 회귀분석 결과 다음 3개의 변수, 즉, 외국인친구, 다문화수업에 관한 수강의도, 다문화에 대한 책이나 멀티미디어 매체에 접촉 경험이 12.9%의 설명력을 가지며 다문화태도를 설명하였다. 12.9%의 다문화태도 설명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다문화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의 파악이 추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 5.1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전공 대학생들과 타전공 대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고,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수집은 대도시인 D시에 위치한 3개의 대학교에서 2012년 11-12월 동안 수집되었으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309명의 간호대학생들과 195명의 타전공 대학생들이 참여하였다. 다문화 측정도구로는 Munroe의 도구를 강혜정이 한국형으로 수정보완한 인지, 공감, 실천의지까지 포함하는 MASQUE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대학생들의 다문화태도는 6점만점에 4.44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들의 다문화태도는 일반전공 대학생들과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 그룹에서, 외국인 친구가 있고, 일주일이상 해외거주한 적이 있거나, 다문화관련 행사에 참여해 본 경우,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본적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문화관련 강의를 수강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다문화태도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생 그룹에서도 간호대학생과 같았다. 그러나 간호학생들과는 다르게 일반학생들의 경우 외국인을 응대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다문화 태도가 더 높았다.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가질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 역량증진 방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5.2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학생 및 간호사를 대상으로 다문화 태도를 파악하고 타전공과 타직종과 비교하여 다문화수준을 파악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상자들을 동일한 도구로 연구하여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한국판 MASQUE에 대해 도구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던 간호학생이 외국인대상자 응대나 간호경험이 다문화태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또한 다문화관련 책이나 방송영화를 접해본 적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다문화태도를 가질 수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비교과 커리큘럼 과정으로 다문화 봉사활동이나 책이나 영상을 보도록 하는 등 비용효과적(cost

effective)인 다문화 역량증진 방안이 간호학생들에게 적용될 것을 제안한다.

## References

- [1] S. M. Kim, "The factors influencing multicultural receptive behavior on immigrant wives of international marriag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15, no.2, pp259-83, 2010.
- [2] Kostat, "The statistics on multicultural population in Korea in 2012" cited 2014 Jan 13,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3/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2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accessed Nov., 22, 2013\)](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2/3/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2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accessed Nov., 22, 2013))
- [3] H. J. Kang, E. M. Lim. "Validation study of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13, no.4, pp.35-57, 2012.
- [4] M. W. Park, E. A. Park. "Effect of Cultural Competence Education for Nurse", *Multiculture Education Studies*, vol.6, no.2, pp.115-33, 2013.
- [5] H. S. Kim,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e*, , vol.14, no.4, pp. 248-256, 2008.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8.14.4.248>
- [6] H. R. Kim, N. M. Hwang, I. S. Jang, K. J. Yoon, B. J. Kang. "The study of reproductive health and policy in foreign immigrant women", *KIHASA*, 2008.
- [7] M. M. Leininger, M. R. McFarland. "Culture care diversity and universality: A worldwide nursing theory: Jones & Bartlett Learning", chapter 15, pp. 93-99, 2006.
- [8] KNA, "Code of Ethics for nurse", cited 2014 Jan 13, Available From <https://www.koreanurse.or.kr>. (accessed Jan., 10, 2014)
- [9] W. 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7, no.4, pp.222-229, 2011.  
DOI: <http://dx.doi.org/10.4094/jkachn.2011.17.4.222>
- [10] W. O. Oh, W. S. Jung, H. G. Kang, E. H. Kim, M. H. Suk, "Cultural Knowledge,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vol.23, no.2, pp. 192-199, 2010.
- [11] D. H. Kim, S. E. Kim. "Cultural Competence and

-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2, no.3, pp. 159-168, 2013.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3.22.3.159>
- [12] K. S. Kim, M. Yoo. “The Influencing Factors associated Cultural Awareness of Immigrants for Marriage, Foreign Workers in Korea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4, no.5, pp. 531-539, 2012.  
DOI: <http://dx.doi.org/10.7475/kjan.2012.24.5.531>
- [13] H. J. Kang.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e attitud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14] A. Munroe, C. Pearson, “The Munroe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e A New Instrument for Multicultural Studi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66, no.5, pp. 819-834, 2006.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05285542>
- [15] M. S. Jeon, H. J. Kim, E. R. Ga, J. W. Kim, J. S. Kim, S. H. Park et al. “Recognition and Attitude of Multiculture i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n Society of Multiuctlural Health*, vol.3, no.1, pp. 9-14, 2013.
- [16] S. L.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19, no.2, pp. 183-193,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83>
- [17] H. Y. Kang, S. Y. Han, “A Study on Social Distance of Nursing Students toward Minority Groups in a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7, no.1, pp.166-178, 2013.
- [18] W. K. Kim, S. J. Park, Y. J. Hur, J. H. Hong, J. H. Kim, “Recognition of the nee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13, no.1, pp. 1-16, 2011.
- [19] J. Allen, “Improving cross-cultural care and antiracism in nursing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30, no.4, pp. 314-320, 2010.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9.08.007>
- [20] S. K. Edgren, C. L. Cason, A. M. W. Brennan, E. Reifsnider, F. Hummel, M. Mancini M, et al. “Cultural competency of graduating BSN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31, no.5, pp.278-285, 2010.
- [21] L. Tulman, R. J. Watts, “Development and testing of the Blueprint for Integration of Cultural Competence in the Curriculum Questionnaire.”,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24, no.3, pp. 161-166, 2008.  
DOI: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8.01.006>
- [22] B. L. Callenen, J. L. Lee, “Ready for the world: Preparing nursing students for tomorrow”,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pp. 292-298, 25(5), 2009.  
DOI: <http://dx.doi.org/10.1016/j.profnurs.2009.01.021>
- [23] R. A. Caffrey, W. Neander, D. Markle, B. Stewart. “Improving the cultur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Results of integrating cultural content in the curriculum and an international immersion experience.”,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44, no.5, pp. 234-239, 44(5), 2005.

## 김 미 중(Mijong Kim)

[정회원]



- 2001년 9월 ~ 2007년 4월 :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09년 3월 ~ 2011년 7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0년 9월 ~ 2011년 2월 : Visiting Research Consultant in Knoxville, TN, USA
- 2011년 3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lt;관심분야&gt;

여성건강간호학, 모유수유, 다문화간호, 간호교육